



한라산 정기받은 해상낙원 제주도

취재 : 곽삼섭 기자

민족의 보물, 절해고도 제주도라!

「가장 제주적인 것이 바로 가장 세계적인 것」이란 명제하에 제주도가 태고의 신비를 제치고 한라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해상의 낙원」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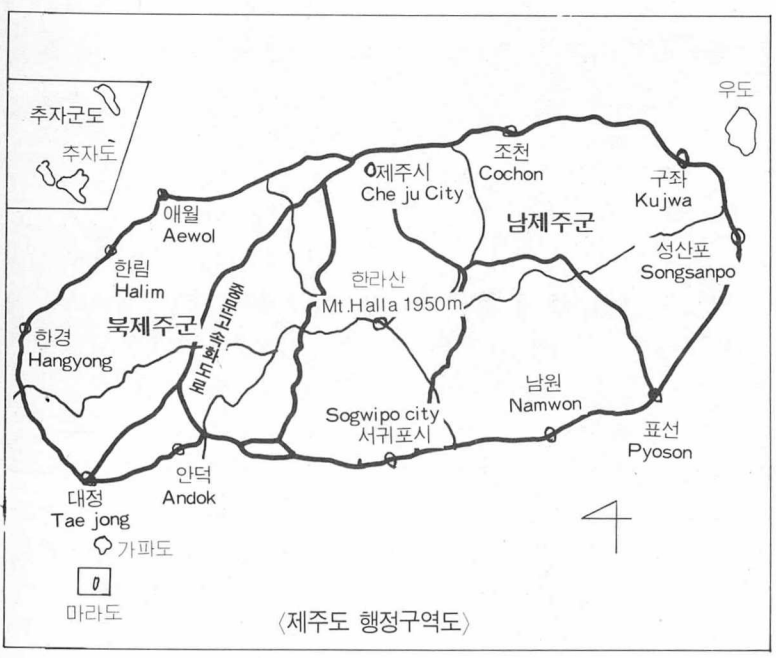
로 발돋움하고 있다. 백두산에서 남으로 향해 내달리던 반도의 정기가 남해에서 멈추기에는 너무나 아쉬워 다시 한번 불끈 치솟아 이루어 놓은 제주도는 천지창조이래의 신비와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을 고이 간직한 민족의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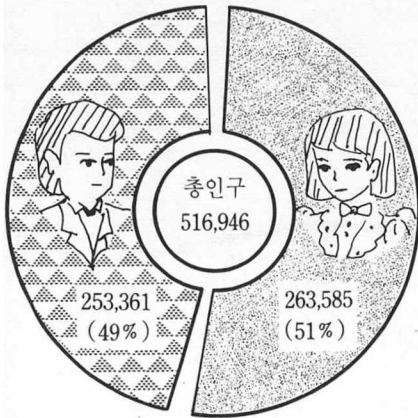
물이다. 넘실대는 파도와 거센 바람만이 유배인의 한을 달래주던 절해고도 제주도가 이제는 과거의 한을 딛고 홍콩을 가늠할 서태평양 최북단의 관광지로 세계를 향해 가슴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제주도를 더 이상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작은 천국 제주도라!

예로부터 금강산, 지리산과 함께 삼신산의 하나로 손꼽히는 한라산은 위용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명산으로 1,950m이다. 한라산에 쌓였던 눈이 4월말까지도 정상과 계곡 등에 남아 있어 파릇파릇 하게 솟아난 식물들과 조화를 이루어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시킨다. 제주인들은 이러한 풍경을 「녹담만설(鹿潭晩雪)」이라 부르며, 특히 해발 1,000~1,100m의 속밭과 해발 1,500





〈그림1〉 '89년도 제주도 남녀 인구비율 분포도

m에 전개된 광활한 구상나무 서식 지역 일대에는 5월 중순부터 철쭉꽃이 만발하기 시작하여 한라산은 최고의 장관을 연출해 내곤 한다.

그리고 한라산 정상의 움푹 패인 분화구에 이루어진 백록담, 한라산 360여개 자화산중 유일하게 바다속에 분출하여 굳어진 암산, 멀리 한라산을 배경해 질푸른 추원에서 한

가히 풀을 뜯는 곳 고수목마, 질푸른 바다위를 솟아오른 성산일출봉, 종유동굴과 용암동굴이 혼합된 2차원의 동굴 협재쌍용굴, 용궁에 살던 용이 하늘로 오르려 다가 굳어진 용의 머리와 같다하여 용두암 등 제주에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의 신비가 창조된 곳이다.

매년 2백만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하늘과 바다의 길을 향해 앞다투어 몰려드는 제주도이고 보면, 바로 낙원으로 일컬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려할 따름이다.

제주도민들은 「세계인의 꿈과 낭만이 머무는 관광휴양지로 가꾸어 도민 스스로 쾌적한 국제수준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자량이 대단하다.

도민들은 또,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정을 잃고 각종 공해에 찌들어 메말라 가는 현대인들에게 제주도의 해맑은 하늘과 검푸른 바다, 상큼한

한라산의 천연지하수, 그리고 녹아 흐르던 용암이 빚어놓은 오묘한 동물과 아열대에서 한대지방식물이 공존하는 자연은 우리 민족의 마지막 보고」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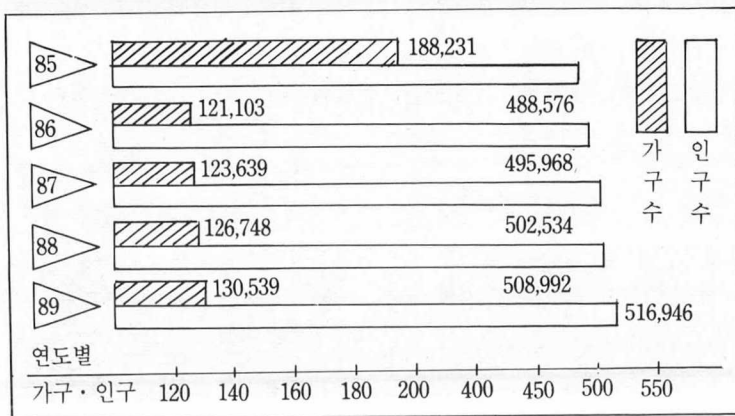
2시(市) 2군(郡)으로 구성, 종합관광개발계획 세워

제주도는 2시(市) 2군(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군단위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으로 분할되어 있다. 북제주군은 애월·한림·구좌·조천 등 4개읍과 한경·추자 등 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남제주군은 성산·남원·대정 등 3개읍과 표선·안덕 등 2개면으로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제주도를 특정 지역으로 지정하고는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세워 관광을 산업화했다.

85년이후 인구는 48만8천5백76명에서 '89년 현재 51만6천9백46명으로 2만8천3백70명이 늘어난 반면, 가구수는 18만8천2백31가구에서 89년 현재 13만5백39가구가 5만7천6백92가구가 줄어드는 등 인구 및 가구변동 추이가 상이한 반대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구당 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89년 남녀 인구비율을 보면, 여자 비율이 많은 것으로 집계돼 있다. 남자가 전체인구의 49



〈그림2〉 연도별 제주도 인구 및 가구수변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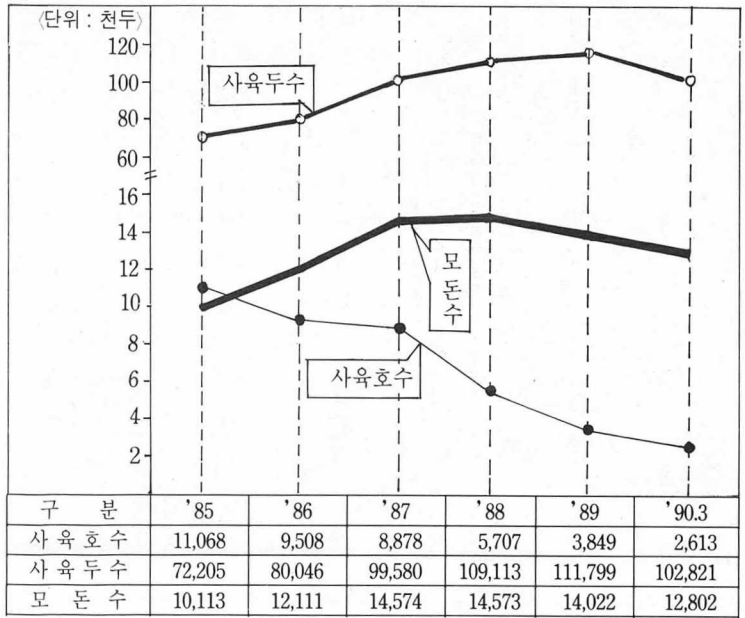
%인 25만3천3백61명이고, 여자가 51%인 26만3천5백85명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계획으로서 교육·행정·유통·금융·위락·교통의 중추적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로 개발, 연간 3백만명의 내외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제주시는 시전역을 3대생활권으로 분산, 중앙생활권(구 제주지역)을 교육·문화 중심지로, 신제주 생활권을 행정·위락 중심지로, 삼양 생활권을 유통·제조 중심지로 개발, 인구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미래의 환상적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의욕적 청사진을 마련해 놓고 있다.

농어촌개선사업으로서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방 농축산물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대정읍 일과리에 농공지구 11만5천㎡를 조성, 17개업체가 이미 입주업체로 지정되었으며, 계속해서 '92~'97년에 한림·성산·애월·남원지구에 2백억원을 투입하여 농공지구를 조성키로 되어 있다.

지역 양돈업, 이시돌목장이 생긴후 활성화

제주도의 양돈업은 처음 이시돌목장이 생긴데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목장대표 피척 맥크리취씨의 선교활동과 함께 1962년경 한림읍 금약리 일대에 목장부지를 조성하여 돼지 1,500여두를 사육했다는 지



〈그림3〉 연도별 제주도 돼지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동향

역양돈인들의 후문이다.

즉, 이시돌목장이 생긴 후부터 재래식돈사가 없어지고 돼지개량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 이유로는 짠밥·인분 등으로 똥돼지를 키우던 농가가 차츰 없어지고, 이시돌목장에서 분양해간 신품종의 돼지를 키우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전한다. 현재 토종돼지는 제주축산개발시험소에 20여두를 사육,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후 이시돌목장은 제주도내 돼지개량을 위해 계속 육종사업을 전개했다고 한다. 그러나 양돈장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 것은 '79년의 극심한 양돈불황 때문이라고 주위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한때 도움을 받았던 양돈농가들은 이시돌목장이

양돈업을 포기한데 대하여 자못 아쉬워 하고 있다.

제주도의 돼지사육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환경에 적응하기 좋은 평균온도 15℃ 유지는 돼지개량의 최적기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질면에서는 육지에서 생산하는 돼지 못지않다는 양돈농가들의 지적이다. 그 이유는 물이 좋아서 고기맛이 좋고, 소비자들이 그 맛을 알아준다고 한다. 양돈농가들이 노력만 하면 관광소비층은 물론 지역적 여건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는 공론이다.

그러나 양돈업의 경영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 영세규모에서 전업규모로, 또 사육호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사육두수는 늘어나는 경향이

<표1> 제주도 돼지축두수 및 소비현황

(단위: 두)

구 분	'85	'86	'87	'88	'89
도 축 두 수	69,373	78,626	96,991	112,423	136,114
평균 1일 소비두수	190	215	265	308	372

<표2> 제주도 돼지반입 및 반출현황

(단위: 두)

구 분	'85	'86	'87	'88	'89
반 입	1,574	1,777	1,308	2,033	197
반 출	3,357	5,441	4,328	9,770	4,927

다. 현재는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업규모에서 두수를 늘리고 있는 형편이어서 자칫 과잉 사육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양돈인들이 많다. 전업규모의 이러한 사육의욕은 지역소비층이 바로 관광대소비도시라는 점과 유리한 사육환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체관계에 없는 돼지고기 소비가 수입확대에 따라 유리한 시장성을 확보할 지는 이견이 양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89년 3월 현재 돼지사육 두수 10만2천8백21두

제주도내 돼지사육호수 및 사육두수는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양돈업의 통계수치를 보면, '90년 3월 현재 2천6백13호에 10만2천8백21두로 집계되어 있다. 이것은 '89년말의 3천8백49호에 11만1천7백99두보다는 1천2백36호, 두수로는 8천7백78두가 줄어든 통계수치이다. 또 '88년에는 5천7백7호보다는 3천84호, 사육두수면에서는 10만9천1백13두보다는 6천2백

92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호수는 해마다 급격히 줄어든 반면, 사육두수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소비공급을 충족시키고, '89년 이후부터는 완만한 곡선을 나타내 안정 추세를 예고하고 있다.

전체사육규모는 1~4두 규모가 2천8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00~299두 1백59호, 50~99두: 1백13호, 5~9두 79호, 300~499두 72호, 10~19두 56호, 30~49두 53호, 20~29두 40호, 500~999두 27호, 1,000~4,999두 5호, 5,000~9,999두 1호 순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 관광자원화 육성책 모색해야

제주도는 겨울철 기온이 비교적 높아 아열대성 작물재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용이한 편이다.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식품소비의 고급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양돈업도 지역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 제주도내 총경지 면적의 3분의 1, 총농업조수익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감귤재배농사는 단 일산업으로서 도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양돈업 이외에 타 축종의 경우는 중산간 지역의 넓은 초지자원을 이용한 소, 특히 번식우의 사육이 조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투기와 전·기업 목장의 낮은 축산의욕, 그리고 쇠고기 수입확대에 따른 장래 수익성 불안 등으로 사육마리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예고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제주지역 농업에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입개방은 채소류 일부와 화훼류를 제외하고는 제주도지역 특화 농축산물의 거의 전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돈업도 마찬가지로지만, 제주농업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개발품목에 대체할 시장성 있는 작목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감귤 등 기간작목의 수요확보와 생산비 절하 등 전반적인 농업생산의 구조조정과 함께 조정기간 동안 농민의 균형된 소득유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정부는 제주도 관광객의 양적·질적 확대에 부응하여 농축산물이 훌륭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양돈업에 관련한 더욱 많은 소비시장 및 소비층을 개척하는 등 다양한 육성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